



홀멘 이그선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굳건한 노력으로 3년 연속 EcoVadis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페이퍼 보드 제품 인버코트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홀멘 이그선드 공장이 다시 한번 EcoVadis에게 가장 높은 등급의 상을 받았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은 평가된 모든 기업 중 상위 1% 이내라는 의미이며 평가받는 기업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가 기관인 EcoVadis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평가합니다. 2022년 EcoVadis는 160개국 200개가 넘는 섹터에서 30,000여 건의 기업을 대상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홀멘 이그선드는 투명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 성과를 모으고 전하고자 초기부터 EcoVadis의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홀멘 이그선드의 요한 그라노스(Johan Granås) 지속 가능성 책임자는 "우리는 투명성을 믿고 EcoVadis에 참여했으며 지속 가능성 성과를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고객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공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이며, 우리가 좋은 품질의 지속 가능한 포장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할 거라는 신뢰를 고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 투명하고 포괄적인 보고를 포함한 모든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홀멘 이그선드는 1685년부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스웨덴 산림 기업 홀멘 산하의 회사입니다.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 토대는 순환성 및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입니다.

"근처 삼림에서 나오는 목재, 지역의 강에서 공급되는 물은 우리에게 전기도 공급해주며, 환경 지속성이 우리의 DNA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최대 고용 기업으로서, 우리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한 그라노스 씨는 플래티넘 등급은 상위 1%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달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일이며 환경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기업이 더

나아질수록 우리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홀멘 이그선드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용력의 증대는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요한 그라노스 씨는 "우리는 항상 환경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삼림의 생물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생산에 필요한 목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공급, 공기 배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작업 환경도 살려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일 때 일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미엄 섬유질 페이퍼 보드 업계를 선도하는 공급업체로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제조업체이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에 있어 본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에게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